

SPECIAL FEATURE

# Korean Artists Today 100+16

2016년 새해가 밝았다. Art는 1999년 창간 이후 지난 17년간 한국미술의 역동적인 흐름과 궤를 함께 해 왔다. 20세기 미술의 유산을 남김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발 빠르게 포착하며 한국미술의 ‘안과 밖’을 종합무진해 왔다. 이제 Art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2016년의 문을 연다. 이번 신년호를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 특별호로 기획, 작가들의 활약상을 토대로 지난해의 ‘미술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Korean Artists Today 100+16’은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이 두드러졌던 한국 작가 116명을 선정, 작가의 최신 약력 및 작품 화보를 정리한다. 여기에 주요 평론의 일부를 세심히 발췌, 소개해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이 발췌문을 토대로 편집부에서 뽑아낸 작품의 ‘키워드’를 글머리에 심는다. 특별호 제목의 숫자 ‘100+16’은 20세기의 ‘100년’에 21세기의 ‘16년’을 더한 것이다. 본지가 주목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만남’을 상징한다. 선정 작가의 범위는 2015년에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부터 주요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로 정했다. 또한 작가들의 개인전 장소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국내 지역 미술관 및 전시공간부터 해외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족적을 세심히 돌아봄으로써 지역별 균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원로작가부터 중견, 중진작가를 주축으로 하되, 그동안 미술계에서 맹활약한 30대 중후반 이상의 작가까지 고른 연령 기준을 세웠다. 물론 Art는 30대 이하 신진작가들의 활약에도 늘 주목하고 있다. 향후 별도의 기획을 통해 신진작가들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마당’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잡지의 역할과 기능도 변한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고, 종이 잡지에 대한 열광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Art는 잡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온라인의 막대한 정보량과 빠른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종이매체만의 느리고 깊은 호흡을 늘 고민한다. 지면 위에 지나간 역사를 각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것.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앞으로 Art는 매해 신년호를 이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로 꾸릴 것이다. 매년 이 특별호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그려 낸 한 해의 미술지형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란다.

## 양혜규 Haegue Yang / b. 1971

서울대 조소과 및 프랑크푸르트 조형예술아카데미 졸업 **Solo Exhibitions** 베이징 올렌스현대미술센터(2015), 삼성미술관 리움(2015), 본 쿤스트페어라인(2014), 싱가포르 타일라판화연구소(2013), 베르겐 쿤스트할(2013) 등 **Group Exhibitions** 리움비엔날레(2015), 사르자비엔날레(2015), 《이중생활》(휴스턴현대미술관 2014), 타이베이비엔날레(2014), 미디어시티서울(2014), 카셀도쿠멘타(2012) 등 **Awards** 김세중청년조각상(2010),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2010), 발루아즈 미술상(2007) 등 **Residencies** 아틀리에칼더레지던시(2015), 글래스고조각스튜디오(2013), 멜피나스튜디오트러스트(2003) 등



복수의 공동체, 멜랑콜리의 힘 상실과 상처, 공동체의 문제는 양혜규의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다. 양혜규의 작업은 역설적으로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로서 바로 그 불가능성을 제시한다. 양혜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서울과 베를린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다. 따라서 한 도시와 또 다른 도시의 '사이'가 아마도 현재 그의 삶의 조건을 가장 잘 정의하는 단어가 될 것이다. '거주지'에서조차 타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은 작가의 3부작 비디오에서 독백조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된다. 작가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내재된 정조는 이방인으로서의 고립감과 떠나온 곳에 대한 노스텔지어와 안정된 공동체에 소속되고픈 욕망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그의 작업이 제공하는 고독과 노스텔지어, 욕망의 경험들은 근본적으로 소통이 불가능한, 따라서 공동체의 경험으로 수렴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으로 분열되어 있다. "나는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이상한 종류의 낙관주의를 공유하는 복수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 작가가 말하는 "이상한 종류의 낙관주의"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운명 공동체', 즉 '우리'가 늘 열망하는 노스텔지어의 완결로서의 공동체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엄습하는 상실감, 그 멜랑콜리의 힘을 믿는 '이상한' 낙관성의 전망인 것이다. / 우경아(포스텍 교수)

《Cittadella》 알루미늄 블라인드, 알루미늄 천장 구조물, 분체 도장, 강선, 무빙 라이트 외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1 삼성미술관 리움 설치 전경 2015

